200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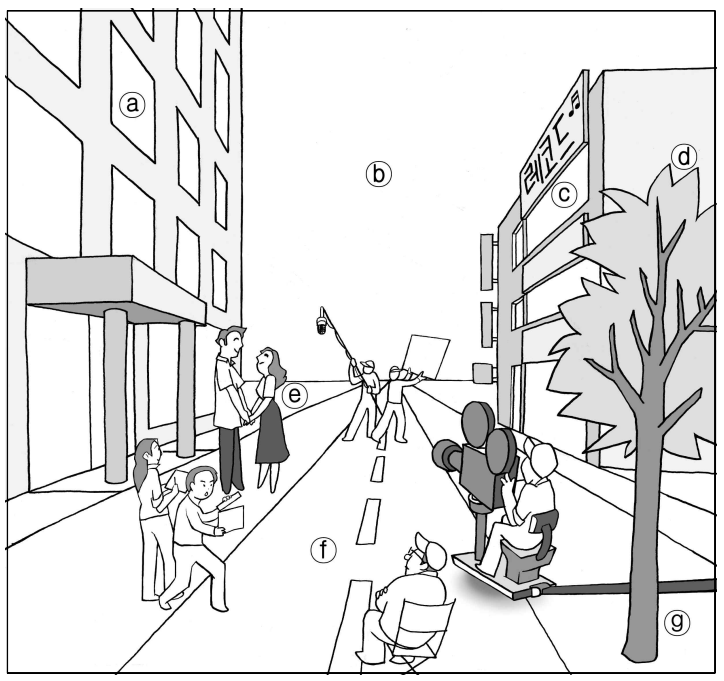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2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연출자가 밝힌 카메라의 이동 순서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 (물음) 선생님이 이어서 할 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것만이 땅을 살리고 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다.
② 사라졌던 생물이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관심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③ 하나의 생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④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인간은 저절로 잘 살게 되어 있다.
⑤ 먹이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생물은 생존할 수 있다.

3. (물음) 이 강연을 통해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꿈을 갖자! 세상은 꿈꾸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② 책을 읽자!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이 그 안에 있다.
③ 한 우물을 파자! 일관된 삶에 진정한 행복이 깃든다.
④ 노력을 하자! 노력보다 더 넓고 탄탄한 인생의 길은 없다.
⑤ 의지를 품자! 꺾이지 않는 것은 곧 성공의 다른 이름이다.

4. (물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대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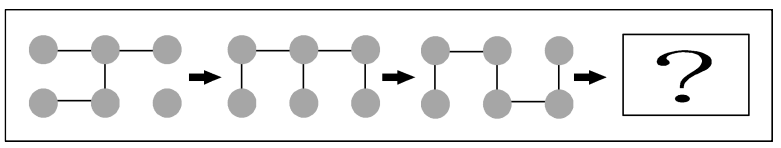
①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 뒤에야 요금을 부과하는 것
② 원하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
③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④ 안내원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
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는 것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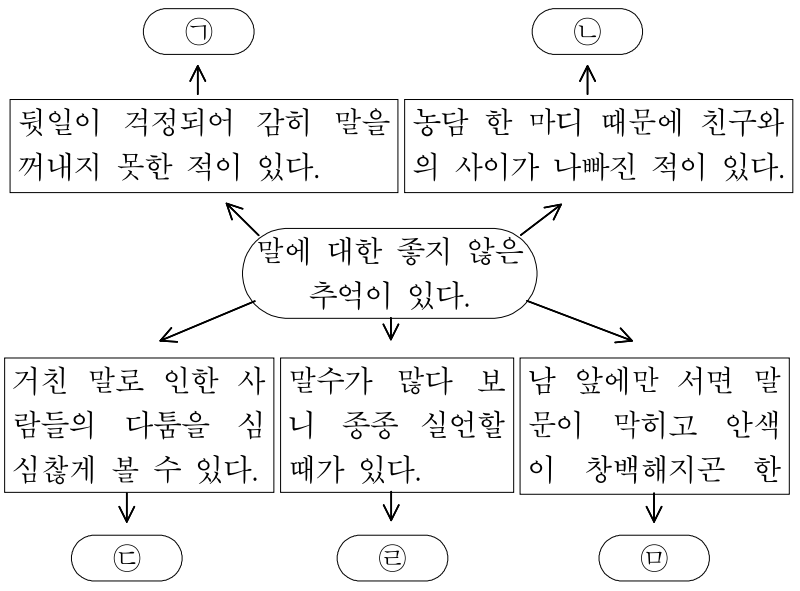
5. (물음) 이 퀴즈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은?

① 개인과 개인의 대결로 우열을 가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문제가 단계에 따라 점차로 어려워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출연자가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④ 불리하던 출연자가 한 순간에 역전할 기회를 마련해 두고 있다.
⑤ 정답을 제시한 후, 사회자가 관련 지식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다.

6. (물음) '3 단계' 퀴즈 문제의 정답으로 알맞은 것은? [1점]



7. '바람직한 말하기'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체험을 바탕으로 구상해 본 내용 구조도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라는 속담을 들어 '진실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 : '실없는 말이 송사 간다'라는 속담을 들어 '신중하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들어 '듣기 좋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 : '말이 많으면 쓸 말도 적다'라는 속담을 들어 '불필요한 말 삼가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⑤ ㉤ :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라는 속담을 들어 '자신 있게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스크린 쿼터제 폐지'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토론 자료를 정리하여 보았다. (가) 또는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찬성> 측 입장	<반대> 측 입장
한국 영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한국 영화 시장의 생존을 위해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찬성> 측 논거	<반대> 측 논거
- 50%를 넘나드는 국산 영화 점유율은 미국의 스크린 쿼터제 폐지 요구를 수용할 여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 영화 제작자들이 이 제도의 보호에 안주하여 소위 '돈 되는' 영화에만 관심을 갖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 자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화의 속성상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할리우드 영화가 우리 나라 영화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 스크린 쿼터제 없이 영화 시장을 개방한 나라들은 모두 영화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① (가) : 영화의 제작과 홍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만 관객의 호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② (가) : 미국에 스크린 쿼터제를 양보하는 대신 다른 부문의 수출이 신장된다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
③ (나) : 외형상의 성장과는 달리 한국 영화 산업의 실질적 기반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④ (나) : 관객의 감각과 취향에 부응하려는 제작자들의 노력을 수익에 대한 관심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⑤ (나) : 제작자들이 상업 영화에 대해 집착하는 현상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9. 다음은 개교 2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총동창회를 열기 위해 만든 초대장이다. [A]에 들어갈 문구로 조건에 맞게 작성된 것은?

초 대 합 니 다

[A]

♣ · ♣ · ♣ · ♣ · ♣

자랑스런 우리 모교 ○○고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정다운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고교 총동창회장 ○○○ 올림

〈 조 건 〉
㉠ 행사의 취지와 애교심을 담을 것
㉡ 학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낼 것
㉢ 비유의 효과를 살릴 것

① ○○고교는 20년 동안 우리가 뿌린 땀과 눈물,
은사님들의 헌신과 선배님들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푸르게 가꾸어 온 그리운 나무입니다.

② 어엿한 성년이 된 우리 모교
그리운 선생님, 그리운 친구들 다시 모여
한마음으로 하나 되는
흥겨운 잔치 마당을 함께 엽니다.

③ 어느덧 20년, 역경을 뚫고 자라온 거목, ○○고교
뿌리가 깊을수록 가지도 무성해지듯
동문의 뿌리깊은 힘으로
원대한 희망을 꿈꾸는 자리입니다.

④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던 추억들
따뜻하게 떠오르는 동기들의 우정
20주년을 맞은 모교에 함께 모여 되새기고 싶습니다.

⑤ 그리운 동문 여러분,
모교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모교의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지 않으렵니까?
20회 생일을 맞은 추억의 장소에서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10. 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해 보았다. 글감을 활용하여 개요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개 요
○ 작문의 상황 : 작품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적 삶의 의미와 작품의 내용을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한다. ○ 제목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읽고 ○ 개요 Ⅰ. 들어가기 - 허구와 사실의 차이 Ⅱ. 전개하기 1. 작품 분석 (1) 극적인 사건의 장치와 구성 (2) 작중 인물의 내적 갈등 2. 작가의 문제 의식 (1) 작가의 작품 세계 개관 (2)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작가의 메시지 Ⅲ. 마무리하기 - '나(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글 감
[사건 개요] ㄱ. 수지는 피난민의 행렬 속에서 동생 오목이의 손을 일부러 놓아 버린다. ㄴ. 전쟁 후 수지는 오빠와 함께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 어엿한 중산층으로 살아간다. ㄷ. 수지는 우연히 만나게 된 한 가난한 여자가 자기의 친동생임을 알게 되지만, 그녀의 곤란한 처지를 알고 자신이 언니라는 사실을 감춘 채, 자선 사업에 몰두한다. ㄹ. 수지는 자식을 자신에게 맡기고 죽어가는 동생을 보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작품 및 작가 정보] ㅁ. 1982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6·25전쟁의 비극적 현실과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라는 시대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ㅂ. "분단의 비극을 딛고 국민의 반수 이상이 중산층이라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풍요의 비극이 있었다." (작가의 인터뷰 중)

① 글감 ㅁ을 활용하여, Ⅰ의 '허구와 사실의 차이'를 '문학과 현실의 관계'로 교체한다.

② 글감 ㄱ, ㄴ, ㄷ을 예로 활용하여, Ⅱ-1-(1)에서 '작품의 구성이 <헤어짐 → 시간의 경과 → 만남>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③ 글감 ㄹ을 근거로 활용하여, Ⅱ-1-(2)에 '작중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야 작품의 주제가 부각된다'는 해석을 추가한다.

④ Ⅱ-2-(1)의 항목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작가가 문제 삼은 작품 외적 요인(나와 우리 삶의 모순)'이라는 항목을 설정하되, 글감 ㅂ을 인용의 방식으로 활용한다.

⑤ 글감 모두를 바탕으로 하여, Ⅲ에서 '나(우리)는 풍요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냉혹한 이기심과 배타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돌아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11.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토의·토론방이다. 현재 올린 글 중, 제안자의 주문에 가장 적합하게 작성된 것은?

◈ 토론의 주제 : 휴대전화 사용 이대로 좋은가?

♣ 제안자 : 학생회장

요즘 교내에서 일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전충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을 남겨 주세요.

♣ 준하스 : 휴대전화는 어른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생활 필수품입니다. 학생에게도 권리가 있고, 또 급한 일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①

♣ 고구려 : 학생들에게 휴대전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면 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야 할 것입니다. ····· ②

♣ 크딜조 : 휴대전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부의 학생들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 심득수 :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권리를 주장하거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못된 사용 습관을 반성해야 하고, 학교는 휴대전화 사용 예절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 ④

♣ 수수과 : 휴대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층마다 공중전화기를 많이 설치하여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⑤

◉ ◉ ◉ ◉ ◉

목록 수정 삭제 쓰기 Re

12. 다음은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라는 수행평가 과제이다. 어휘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어머니, 축구 좀 하다가 집에 가도 (돼요 , 되요)? ····· ①
○ 손전등으로 그의 얼굴을 (비쳤다 , 비췄다). ····· ②
○ 인원을 (늘려 , 늘여) 일을 빨리 마쳐라. ····· ③
○ 입맛을 (돋우는 , 돋구는) 음식을 보니 시장기가 느껴진다. ····· ④
○ 밤을 새워 공부하려니 힘이 (부친다 , 붙인다). ····· ⑤

4 언 어 영 역

13. 다음 글은 '따뜻한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작성된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삶에서 따뜻한 대화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대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따뜻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와 친밀해지기도 하고, 쌓였던 오해도 풀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대화 없이는 진정한 인간 관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 첫째, 일상 생활에서 공격적인 비속어나 유행어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썰렁하다'라는 말은 '재미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런 표현은 말한 사람을 무안하게 하거나 대화의 맥을 끊어버리곤 합니다. ⓒ게다가 유행어나 은어를 남발하는 사람은 저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
> 둘째, 대화 상황에 적절한 언어 외적 표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언어 외적 표현은 몸짓, 태도, 표정, 눈길, 손짓, 옷차림 등을 통해 의사를 들어내는 것으로, 이를 대화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원숙해집니다.
>
> 셋째,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화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여 다정하고 친근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쓸데없는 오해나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① ⓐ는 문맥의 흐름상 어색하므로, 첫 문단의 마지막 부분으로 옮겨야 해.
② ⓑ 다음에 내용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를 '그런데'로 고쳐야 해.
③ ⓒ는 논점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단락의 통일성을 위해 ⓒ를 삭제해야 해.
④ ⓓ는 어휘 선택이 적절하지 못하므로, '따뜻해집니다'로 고쳐야 해.
⑤ ⓔ는 뒷문장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고쳐야 해.

14.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설명한 유형의 잘못을 범한 문장은? [1점]

① 이 문은 잘 열려지지 않는다.
② 다음은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③ 어머니께서는 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
④ 이 과일은 저 과일에 비해 맛도 영양도 훨씬 많다.
⑤ 자료를 준비한 분은 별도의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나)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文義)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 고은, '문의(文義) 마을에 가서'

(다)

맥의 나라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나뭇잎이 듬성해지네.
가을 깊어 마을에 술이 있는데,
나그네는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 보았네.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 드리웠고,
강물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발걸음 가는 ⓒ길 머뭇거리네.

– 김시습, '도중(途中)'

15. (가)~(다)를 읽고 난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화자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어.
② (나)는 추상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어.
③ (다)에 나타난 계절적 배경은 화자의 내면 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
④ (가), (나)는 독백체의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
⑤ (가), (나), (다)의 화자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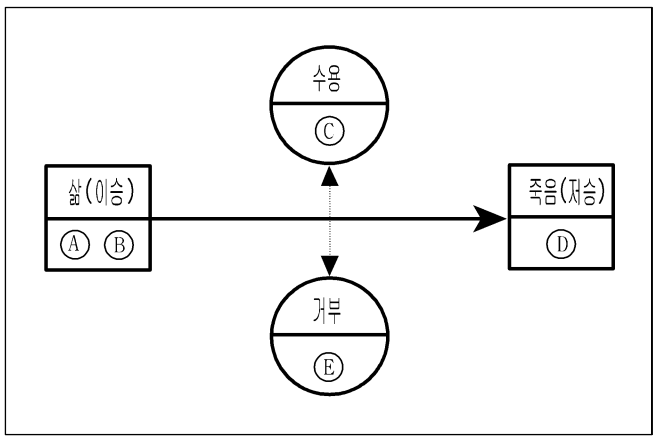
16. ⓐ~ⓒ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① ⓐ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는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② ⓐ는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을, ⓒ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③ ⓑ는 운명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는 정신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④ ⓐ는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와 ⓒ는 운명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⑤ ⓐ와 ⓒ는 정신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는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7. 다음 글을 (가)의 지은이가 쓴 일기라고 가정할 때, ㉮~㉯ 중 이 내용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나)의 시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보았다. Ⓐ~Ⓔ에 들어갈 시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세상 ② Ⓑ : 잠든 마을 ③ Ⓒ : 눈
④ Ⓓ : 먼 산 ⑤ Ⓔ : 재

19. 다음 글에서 ㉠, ㉡과 의미가 통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1점]

영국의 그룹 핑크 플로이드는 '벽'이라는 앨범을 통해 인간 의식의 저장고를 깊이 파고들어 음악으로 표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현대 사회를 획일적 행위를 강요하는 훈련장이자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보았다. '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 의사를 차단함으로써 자아를 단절시키는 칸막이였다. 나뉜 공간들은 고립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마저 막힌 절망적 상황이다. 그러나 이 앨범의 미덕은 이런 순간에도 절망을 벗어나려는 이상향에의 열망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
①	칸막이	통로
②	훈련장	칸막이
③	저장고	전쟁터
④	통로	이상향
⑤	전쟁터	훈련장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의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은 성직자나 철학자가 상대하는 인간이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인간과는 크게 다른 존재다. '경제인'(經濟人, homo economicus)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데 삶의 초점을 맞추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이는 '경제인'의 특징이 '합리성'(合理性)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성은 경제학의 대상을 규정짓는 가장 강력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합리적 인간'이 지닌 구체적 특성들은 무엇인가?

'합리적 인간'은 자기의 이익에 철저한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는 오직 두 개의 가치에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하나는 쾌락이요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합리적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는 오로지 그 자신만 안다.

또 '합리적 인간'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합리적 인간'의 태도는 윤리·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언제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합리적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기적인 선택 또한 언제나 '합리적'이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효용함수'(效用函數)라는 것에 담아놓았다. 가장 단순하게는 U=f(C)로 표기하는 효용함수는 행복의 수준(U, utility)과 재화소비량(C, consumption)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공식대로 해석하면, 나의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면 나의 행복이 증가하고 소비량이 감소하면 행복도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을 소비하느냐는 나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의 소비량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는 일정한 양의 재화를 소비하는 데서 내가 얻는 만족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 세계의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키우는 데 철두철미한, 이기적이고 고립된 존재다. 현실에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이타적 심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불합리한 것이 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이타주의적 효용함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 그의 행동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경제학은 이 예외적인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정리(定理) 또는 이론들은 바로 '이기적 인간'을 토대로 삼아 엄정한 수학적 증명 과정을 거쳐 확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경제인의 개념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경제인 스스로 내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적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20. 경제 관련 강연회에서 위 글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한다. 강연회의 제목과 활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제적 성공의 길, 경제학에 있습니다.'
- 경제적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으로 소개한다.

② '소비자, 현대 경제의 중심 코드입니다.'
- 기업인들에게 소비자의 생리를 이해시키는 근거로 활용한다.

③ '경제학, 탄탄한 기본 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경제학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식으로 제시한다.

④ '경제적 합리성,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 경제적 좌절을 겪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활용한다.

⑤ '경제적 행복,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이익의 예로 활용한다.

21. 경제인의 관점에서 다음에 나타난 '나'의 행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상다리가 휘어지게 잘 차린 밥상을 받았을 때, 마침 우리 집 문간에 며칠을 굶은 사람이 힘들게 앉아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음이 불편해서 진수성찬이 자꾸만 목에 걸렸다. 결국 나는 밥상을 대문 앞의 걸인에게 내주었다. 그로 인해 나는 물과 밥과 김치만 먹었지만 마음은 편안해졌다.

① '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했어.
② '나'는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타주의적 효용함수가 큰 인물이군.
③ '나'는 자신의 소비량을 줄이고 남의 소비량을 늘림으로써 더 행복해졌군.
④ '나'의 행복은 타인의 소비량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비량에 달려 있는 거야.
⑤ '나'의 물질적 소유량이 손실되었으므로 '나'의 행동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어.

22. 다음을 참고하여 [A]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우연히 백만 원의 돈을 얻게 된 세 명의 사람이 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갑'은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모두 사들여 마음껏 읽겠다며 콧노래를 불렀다. '을'은 '갑'이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자기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친한 친구들을 불러 밤새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다. '병'은 그 돈으로 여러 차례 미뤘던 값비싼 피부 마사지와 미용 관리를 받을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① 사람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 기준이 다르다.
② 쾌락의 비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③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낫다.
④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히 이기주의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⑤ 나 자신의 이익을 남에게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3. ㉠의 의미를 설명할 때 활용하기에 알맞은 속담은? [1점]

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② 남의 염병도 제 고뿔만 못하다.
③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④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⑤ 곳간에서 인심 난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을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된 객관적 지식의 체계로 보는 생각은 오늘날 상식처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관의 일반화는 과학 혁명으로부터 비롯된다. 과학 혁명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세계관이 혁명적으로 바뀐 일련의 사건을 일컫는다.

과학 혁명은 폴란드의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 신부가 종래의 우주 모델을 뒤엎는 천문학 이론을 발표하면서 막이 올랐다. 그 당시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적 천문학이 부동의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 천동설을 무려 1500여 년 동안이나 신봉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지동설을 발전시킨 과학자는 갈릴레이이다. 그는 로마 교황청에 고발되어 일흔 살 때인 1633년 종교 재판에 회부되는 고난을 겪는다. 그는 실험과 관찰에 기반을 둔 과학 활동을 하였다. 결국 그런 활동은 종교와 신앙에 바탕을 두었던 전통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었다.

과학 혁명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한 인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는 영국의 뉴턴이다. 그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완성하지 못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뉴턴은 세 가지 간단한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태양, 항성, 행성, 혜성 등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운동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조수의 간만에서 사과의 낙하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운동 문제를 해결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다른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뉴턴에 의해 근대 역학이 완성됨에 따라 서양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특히 19세기 말의 과학자들은 전자기학과 열역학에서 발견된 법칙들이 뒤엎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20세기에 기존의 물리학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이론이 제안됨에 따라, 뉴턴의 물리학은 옛것이라는 뜻에서 고전 물리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전 물리학을 정면으로 거부한 새로운 물리학은 상대론과 양자 역학이다. 상대론은 천재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머리에서 나온 반면에 양자역학은 여러 나라의 위대한 과학자들, 이를테면 프랑크, 보어, 슈뢰딩거 등의 연구로 기틀을 잡았다. 상대론은 우주의 거대한 차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원자 이하의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2백 년 이상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던 뉴턴의 역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 의해 붕괴됨에 따라, 비관적인 과학론이 대두되었다. 과학 혁명을 통해 가졌던 확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고 믿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어떠한 과학 이론도 자연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앞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20세기 과학자들은 양자 역학이 상대론보다 더 위력적으로 고전 물리학의 개념 체계를 뒤엎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연에 대한 인식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론과 양자 역학은 과학을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확실성도 없는 지식 체계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24. 위 글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과학 혁명의 시작은 언제일까?
② 현대 물리학의 과제는 무엇인가?
③ 과학에서 관찰과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④ 과학에서 불변의 법칙은 존재할 수 있을까?
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25. 다음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위 글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패러다임은 다양한 관념을 서로 연관시켜 질서 지우는 체계나 구조를 일컫는다. 이 하나의 패러다임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과학적 활동을 정상 과학이라고 한다. 패러다임에 위기가 찾아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정상 과학으로 되기까지의 활동을 이상 과학이라고 한다. 이같이 과학의 역사는 일관된 축적·진보·발달의 역사라기보다 몇몇 패러다임이 교대하는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교대 현상을 과학 혁명이라고 한다.

① 고전 물리학은 패러다임이 형성되지 못한 시기의 과학이야.
② 과학 혁명이라는 말은 특정 시대에 한정된 표현이 아니겠군.
③ 이상 과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되기까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군.
④ 과학 혁명은 이상 과학이 정상 과학으로 인정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⑤ 기존의 패러다임도 언젠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말이군.

26. 위 글을 토대로 각 과학자를 소개하는 만화를 그리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② 

④ 

⑤ 

27. ㉠과 ㉡의 문맥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점]

	㉠	㉡
①	우주(宇宙)	지구(地球)
②	천체(天體)	육지(陸地)
③	천상(天上)	대륙(大陸)
④	천공(天空)	토지(土地)
⑤	반공(半空)	대지(大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그(권씨)는 나(오 선생)의 문간방에서 전세를 얻어 살게 된다. 얼마 후 그의 아내가 순산을 하지 못해 분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다. 형편이 어려운 그는 나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의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 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아, 그거 참 안됐군요'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십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상 분만비 1, 2만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겨를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중략)

"바쁘실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A] 그의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씰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중략)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닥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찌기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도둑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땜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 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을지?"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오."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흥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28. 위 글을 읽는 과정에서 특정 어휘에 주목하여 '권씨'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말' → 그는 평소에는 언어를 점잖게 사용해 온 편이다.
② '막벌이' → 그는 변변한 일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다.
③ '식칼' → 그는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되었다.

④ '이웃' → 그는 평소 주변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⑤ '문간방' → 그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애로 뭉쳐진 한 가정의 가장이다.

29.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 ⓑ와 관련하여 구상했음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강압적인 현실의 힘에 억눌려 현실에 차츰차츰 타협하는 인물로 설정하자.
②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자존심은 끝내 버리지 않는 인물임을 보여주자.
③ 겉보기와는 달리 내면의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내자.
④ 현실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욕망까지도 포기하는 인물로 그려내자.
⑤ 현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항하려는 인물로 제시하자.

30. [A]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썼을 때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나는 그에게 겨우 인사말을 하고 돌아선다. 발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는다. 입 안에서는 '오 선생, …… 나도 정말 오 선생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소.'라든가 '오 선생이 내게 그러실 줄은 몰랐소.'라는 말들이 맴돈다. 그러나 말을 내뱉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말문이 막혀 버린다. 흠칫 놀라는 듯한 그의 표정은 마치 날아올 화살을 예상하여 무슨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듯하다.

① 인칭을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나(권씨)'의 객관적 판단이 강조된다.
② 시제를 바꿈으로써 인물이 과거를 회고하는 듯한 느낌이 감소된다.
③ 서술 시점을 바꿈으로써 추측성이 강한 관찰자('오 선생')의 시점이 부각된다.
④ 멀어져 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꿈으로써 서술 속도에 변화가 생긴다.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을 '그'에서 '나'로 바꿈으로써 '나(권씨)'의 심정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난다.

31. ㉠과 관련하여 발화자가 떠올렸을 법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당신이 지금 대문으로 나가야만 훗날 내가 당신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② '지금 당신이 저지른 행동을 당신의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피신부터 해야 해요.'
③ '당신이 문간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강도짓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에요.'
④ '당신이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밖에 없었듯이, 나도 현재 당신을 모른 체할 수밖에 없어요.'
⑤ '현재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강도 신분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권씨여야 해요.'

32. 위 글에서 나타나는 '나'의 현실 인식과 태도를 평가하는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생성하고자 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석·평가의 초점	해석·평가를 통한 내용의 생성
'그'에 대해 취한 '나'의 태도는?	상대의 간절한 요청을 받은 뒤, 도울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
⇩	
'그'에 대한 '나'의 대응 방식은?	물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상대의 여건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앞세워 요청을 거절한다
⇩	
'나'의 태도와 대응의 문제점은?	(가)
⇩	
'나'의 현실 인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삶과 현실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시각과 타인의 삶을 나의 삶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이다.

① 타인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② 남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잘못에 대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
④ 소원한 인간 관계의 원인을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
⑤ 착한 마음 이면에 개인의 입장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역사학에 관한 크로체의 유명한 언명(言明) 중 하나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말이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 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역사의 ⓐ객관성(客觀性)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역사는 객관적인가'라는 질문은 '역사는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을 담고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은 바로 역사의 ⓑ공정성(公正性)에 대한 의심에서 생겨난 말이기 때문이다.
>
>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 될 수 있는 한 예가 사도세자의 경

우이다. 일반인들이 지닌 사도세자에 대한 인식은 그 부인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의해 생기게 되었다. 수많은 역사 소설이나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등이 이 책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중록'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한중록'의 트릭에 걸리고 말았다. '한중록'의 주제는 간단하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신병자인 사도세자와 정신병자에 가까운 그 부친 영조 사이의 충돌의 결과 한 정신병자가 죽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한 세력이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혜경궁 홍씨의 친정 아버지 홍봉한이 이끌었던 노론이라는 세력이다.

'한중록'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를 죽인 주범이 홍봉한이라는 상소가 빗발쳤고 결국 홍씨의 친정은 쑥대밭이 되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혜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쓴 이유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손자인 순조에게 전하기 위해 '한중록'을 쓴 것이다.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까지 죽어 버린 상황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던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승자의 기록이 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때로는 몇 백년, 어느 경우는 몇 천년 이후에 드러난다.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상상력만으로 진실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영조실록, 정조실록은 물론 당시의 세자를 직접 모셨던 세자궁 관원의 수기 등 여러 사료를 참고해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가 항상 승자의 기록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 역사는 현실에서는 패배했으나 추구하는 방향이 옳았던 세력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직필(直筆)'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의 권력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의 ㉡사화(士禍)를 때로는 사화(史禍)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사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사관 김일손과 권경유가 연산 4년 무오사화 때 사형을 당한 것은 역사의 객관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끝내 목숨까지 빼앗은 사실을 후대에 전하려다가 사형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어떤 역사 기록은 객관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개연성이 필요하다. 역사는 상식의 체계이기 때문에 개연성의 틀 내에서 서술된다면 상당 부분은 객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개연성에 의거한 객관적인 시선을 갖추고, 이를 통해 허위를 꿰뚫는 식견과 자료의 잘못을 판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33.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역사의 서술 대상을 한정하려고 한다.
② 역사학자의 언명이 적절한지 따져 보려 한다.
③ 역사를 보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려고 한다.
④ 역사학의 존재 가치에 대해 홍보하려고 한다.
⑤ 역사학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려고 한다.

34. '한중록'을 읽은 독자의 반응 중 글쓴이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승자의 기록이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사료를 보완해야 해.
② 다른 기록을 참고하여 역사적 진실성을 검증하고 밝혀내야 해.
③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은 기록이야.
④ 처음에는 바른 기록이 아니었지만 세월이 흘러 진실성이 입증되었어.
⑤ 승자의 기록이지만 대상에 대해 부정적이므로 역사 서술에서 배제해야 해.

35. ⓐ, ⓑ,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 있어야 ⓑ와 ⓒ가 있을 수 있다.
② ⓑ가 있어야 ⓐ와 ⓒ가 있을 수 있다.
③ ⓒ가 있어야 ⓐ와 ⓑ가 있을 수 있다.
④ ⓐ와 ⓑ가 있어야 ⓒ가 있을 수 있다.
⑤ ⓐ와 ⓒ가 있어야 ⓑ가 있을 수 있다.

36.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1점]

① 구체적인 자료가 빠진 보고서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
②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등한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③ 공부면 공부 얼굴이면 얼굴 도무지 빠지는 것이 없다.
④ 친구의 꼬임에 빠져 독서실에 안 가고 오락실에 갔다.
⑤ 시험을 다 보았더니 앓던 이가 빠진 것같이 시원하다.

37.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때, ㉡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화(士禍)는 원래 가해 측인 훈신·척신 계열에서는 '난'으로 규정하였으나 피해 측인 사림계열은 정론을 펴던 현사(賢士)들이 죄 없이 화를 당한 것이라고 하여 '사림의 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림계가 정치적으로 우세해진 선조(宣祖) 초부터는 '사화(士禍)'라는 용어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척신 정치가 일단 종식된 뒤부터는 정치적인 분쟁과 축출이 있어도 그것을 사화(士禍)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① 사화(士禍)와 사화(史禍)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② 사화(士禍)라는 명칭도 가치 개념이 개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사화(士禍)라는 명칭을 통해 사림의 정치적 위상을 알 수 있다.
④ 사림을 기반으로 한 선비들이 역사를 분쟁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역사에 기록된 사화(士禍)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가 귀중한 문화 유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어는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 요소에 의한 구조적 측면과, 어느 한 언어권의 오랜 생활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의 소산으로서의 문화적 측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진 존재다. 사람이 언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됨의 한 징표이며, 언어마다 다른 어휘 체계와 표현 방식을 가졌다는 것은 각 언어가 해당 언어 사회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는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가 문화 유산이라는 데 대해서는 쉽게 수긍을 하면서도 말이 문화적 유산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새로운 문물 제도가 생겨나면 그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생겨나고, 그러한 문물 제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하면 그것들을 표현하던 말도 변화하거나 과거의 유물이 되어 버려 더는 쓰이지 않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난날의 다양한 생활 풍습, 삶의 모습 등 과거의 문화적 양상을 넓게 그 속에 담아서 당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인들이 쓰던, 또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물려받아 쓰고 있는 말은 그대로 문화 유산이요, 무형의 문화재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언어는 고고학적 유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말이 겪고 있는 변화는 전례 없이 그 폭이 크다. 어휘 체계의 변화는 이루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젊은이들은 개화기의 인쇄물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외래어의 유입,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새말로 인해 세대 간의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말소리, 문법 분야의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장단음의 구분이 없어지고, 억양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존대법은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 오늘과 같은 표준어의 고른 보급은 광복 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의 힘든 노력의 결실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 후대에 전수되지 않고 빠르게 사라져 가기만 하는 많은 양의 방언은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언어가 과연 귀중한 문화 유산이고, 소중한 문화재라면 소실된 말들을 수집·보존하고, 더는 잃지 않도록 보호할 방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막을 수도 없고 반드시 막아야 할 까닭도 없다. 다만, 급격한 언어의 변화는 언어 규범의 파괴를 가져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완급을 조절하는등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의 언어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에 언어 변화의 궤적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 자료들을 보존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

38. 위 글의 내용 전개 과정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① 대상의 개념 정의 → 다양한 사례 제시 → 문제 현상 비판
② 대상의 성격 규정 → 문제 상황 제시 → 대책 마련의 필요성 제시
③ 대상에 대한 가설 설정 → 문제 상황 제시 → 문제 현상의 원인 분석
④ 특수한 사례 제시 → 공통적 성격 추출 → 대상의 보편적인 성격 일반화
⑤ 대상에 대한 통념 제시 → 시간적 순서에 따른 변화 과정 분석 → 대책의 필요성 제시

39. 위 글의 논지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문화재나 문화 유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② 우리말을 순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③ 언어를 고유의 문화 유산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④ 언어에 반영되는 사회상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까?
⑤ 사라진 우리말을 수집·보존할 방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40. ㉠을 근거로 우리말 어휘를 활용하여 전통 생활과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들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란 말을 중심으로 우리의 세시 풍속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② '볍씨, 모, 벼, 쌀'이란 말을 중심으로 우리의 농경 생활을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③ '간장, 된장, 장아찌, 온돌'이란 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와 생활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하면 어떨까?
④ '초가집, 처마, 툇마루, 외양간, 뒷간'이란 말을 중심으로 주택과 생활의 관련성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⑤ '샛바람, 마파람, 하늬바람, 신바람, 댓바람'이란 말을 중심으로 선인들의 여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

41. <보기>의 (A)는 장단음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조할 때, <보기>의 (B)에서 '눈'이 길게 발음되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 보 기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2. ㉡에 대해 글쓴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근래 우리말이 겪고 있는 변화의 폭이 커서 과거의 언어와 질적·양적으로 달라진 것은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② 소중한 문화 유산인 우리말 어휘가 소실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귀중한 자료를 읽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③ 일상 생활에서 젊은이들의 외래어 사용이 불가피한 일일지라도 그들이 귀중한 문화 유산인 과거의 언어 자료를 외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④ 기성 세대와의 대화가 어려워진 것은 젊은이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세대 간의 대화를 위해 외래어보다는 우리말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⑤ 문화는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문화 변동의 시기에 젊은이들이 과거의 언어 자료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양상입니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른바 ㉠규중 칠우(閨中七友)는 부인네 방 가온데 일곱 벗이니 글하는 선비는 필묵(筆墨)과 조희, 벼루로 문방 사우(文房四友)를 삼았나니 규중 녀잰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이러므로 침선(針線)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새, 바늘을 세요 각시(細腰閣氏)라 하고, 자[尺]를 척 부인(戚夫人)이라 하고, 가위를 교두 각시(交頭閣氏)라 하고,

(중략)

일일(一日)은 칠위 모혀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자히며 이르되,

"제우(諸友)는 들으라, 나는 세명지 굵은 명지 백저포(白紵布) 세승포(細升布)와, 청홍녹라(靑紅綠羅) 자라(紫羅) 홍단(紅緞)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男女衣)를 마련할 새, 장단 광협(長短廣狹)이며 수품 제도(手品制度)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이루리오. 이러므로 의지공(衣之功)이 내 으뜸되리라."

교두 각시 양각(兩脚)을 빨리 놀려 내다라 이르되,

"척 부인아, 그대 아모리 마련을 잘 한들 버혀 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되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마라."

세요 각시 가는 허리 구붓기며 날랜 부리 두루혀 이르되,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眞珠) 열 그릇이나 꿴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 능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 하리오."

(중략)

규중 부인이 이르되,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언필에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오고 잠을 깊이 드니 척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매정할사 사람이오 공 모르는 것은 녀재로다. 의복 마를 제는 몬저 찾고 일워 내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종 잠 깨오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브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흡지 아니리오."

– 작자 미상, '규중 칠우 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

(나)

어느 날, 나는 좀 심심해서 나의 ㉡손과 발이 쓴 일기를 들추어보았다. 다음은 같은 날에 쓴 두 녀석의 일기를 몇 곳 대조해 본 것이다.

a월 a일

손 : 오늘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만년필 하나만을 움직인 것만 해도 다섯 시간이 넘는다. 나는 하필 사람의 손으로 태어났을까? 발이란 놈은 여전히 편하다. 도대체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따금 걸어다니는 일 이외에는 그저 가죽옷이나 입고 거드럭거리기나 하면 그만 아닌가?

발 : 오늘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버티었다. 주인의 체중은 무려 63kg. 나는 하필 사람의 발이 되었을까? 손이란 놈은 여전히 편하다. 도대체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제깟 놈이 뭔데 내가 온종일 떠받치고 살아야 하는가?

a월 b일

손 : 웬 날씨가 이리도 무더울까? 온종일 발가벗은 몸으로 햇볕에 탔다. 여인네들은 더러 시원한 장갑으로 햇볕을 막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주인은 그럴 줄도 모른다. 발이란 놈이 부럽다. 온종일 시원한 양말로 몸을 가리고 그늘 속에서만 지낸다.

발 : 웬 날씨가 이리도 무더울까? 하루 종일 한증막 같은 구두 속에서 숨이 막혔다. 그 흐르는 땀, 그 고린내, 이제는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다. 헌데 손이란 놈은 무슨 팔자인가. 대낮에도 벌거벗고 시원스레 나돌아 다녔다.

이 두 녀석의 일기를 대조해 읽으면서 나는 퍽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세상 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줄을 알겠다.

– 정진권, '손과 발의 일기'

43. (가)와 (나)의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풍자하고자 하는 대상은?

① 이해 관계에 따라 변하는 세태
② 타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세태
③ 상황에 따라 처신이 달라지는 세태
④ 이기적인 욕망이 공익에 우선하는 세태
⑤ 스스로가 공로를 내세우고 선전하는 세태

44. ㉠과 ㉡의 태도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은 남을 의식하여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있다.
② ㉠은 주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③ ㉠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폄하하고 있다.
④ ㉡은 불만스럽지만 주인의 처사를 수긍하고 있다.
⑤ ㉡은 남과 비교하여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있다.

4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허구적인 설정을 통해 교훈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② 여성의 일상적인 삶의 단면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③ 대상의 내면과 외면을 자유롭게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소재들의 명칭을 그 생김새나 쓰임새에 따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46. (나)와 그 주제가 유사하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의 표현 방식이 나타나 있는 것은? [3점]

> 수필에서는 (나)와 같이 사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사물의 장점 또는 단점을 거론하여 교훈적 의미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① 비로봉 동쪽은 아낙네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해(樹海)였다. 설 자리를 삼가, 구중심처(九重深處)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 공주(樹中公主)이던가!

②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그윽한 향기를 온 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사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성자(聖者)인 양 기도를 드린다.

③ 나무는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不滿足)을 말하지 아니한다. 나무는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 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④ 나무들에게는 한때의 요염(妖艶)을 자랑하는 꽃이 바랄 수 없는 높고 깊은 품위가 있고, 우리 사람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점잖고 너그럽고 거룩하기까지 한, 범할 수 없는 위의(威儀)가 있다. 우리 사람은 이러한 나무 옆에 서면 참말 비소(卑小)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⑤ 물의 본성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대지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같다. 폭포수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거센 폭포라 해도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떨어지는 중력에의 순응이다. 폭포수는 우리에게 물의 천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해 준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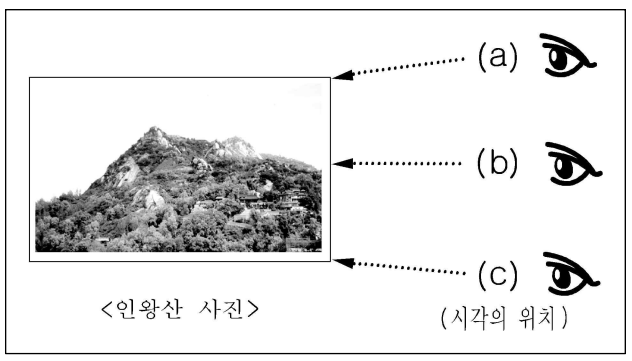
산이 주는 갖가지 느낌은 조형만으로는 충분히 환기되기가 어렵다. 게다가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감수성의 내용은 다만 오감으로 포착되는 현재의 감각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체험했을 때, 그것은 즉각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결합하여 좀더 고차원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복잡하고 종합적이며 고차원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산수의 참 모습을 서양의 풍경화로 담아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양화의 일점투시도법(一點透視圖法)에 있다. 서양화의 이른바 과학적 원근법은 부동의 관찰자라는 단 하나의 ⓐ시각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서양의 풍경화를 눈여겨보면, 설령 화폭에 인물이 그려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화면 밖에 반드시 한 사람의 관찰자가 있어서, 이젤 앞에 못 박힌 듯이 서서 주위 풍경을 측량하듯이 바라보는 차갑고 단조로운 ⓑ시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옛 산수화에서는 어디까지나 산수 자체가 주인공이다. 사람은 주인공인 산을 소중하게 한가운데 모셔 두고서 치켜다 보고, 내려다 보고, 비껴 보고, 휘둘러 봄으로써 산수의 다양한 실제 모습에 접근하려 한다. ㉠우리 옛 그림의 원근법이 갖는 장점이 잘 드러나 있는 '몽유도원도'를 보면, 첫째 깎아지른 높은 산을 아래에서 위로 치켜다본 시각[고원법, 高遠法]이 있고, 둘째 엇비슷한 높이에서 뒷산을 깊게 비껴 본 ⓒ시각[심원법, 深遠法]이 있으며, 셋째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폭넓게 조망한 시각[평원법, 平遠法]이 뒤섞여 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삼원법(三遠法)'이라 하는데, 이 점을 눈여겨보는 것은 옛 산수화를 보는 재미의 하나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다양한 ⓓ시각이 뒤섞여 있으니 작품 전체가 매우 이상하게 보임직한데, 오히려 옛 산수화를 보면 마음이 평온하기 그지없다. 그것은 서양의 투시 원근법상의 논리로부터 슬그머니 도망쳐 나온, 수없이 많은 자잘한 여백들이 경물과 경물 사이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A] 서양 입체파의 선구자인 피카소가, 사물을 보는 자유롭고도 상상력 넘치는 시각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서양 회화사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하나, 그의 작품은 종종 형상을 너무 무리하게 왜곡시켜 감상자에게 주관 속의 일그러진 인상만을 보여 주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입체파의 모범은 오히려 우리의 옛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산수화는 결코 자연의 사실성을 훼손하여 그것을 화가의 개인 의식 속으로 침몰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자연이라는 대상이 살아 있고, ㉡그 대상에 반응하는 인간도 자연과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 옛 그림 속의 삼원법은 바로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7. 위 글을 바탕으로 미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다음 사진에 관해 제시한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왕산 사진> (시각의 위치)

① 현수 : 이 사진은 사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에는 화가의 체험을 되살려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② 예진 : 만약 서양화가가 이 사진을 바탕으로 풍경화를 그린다면, 화면 바깥에 하나의 고정된 시점을 설정하여 그림을 그려 나갈 거야.

③ 선우 : 내가 산수화를 그린다면, (a) 위치에 시점을 맞추고 '평원법'으로 이 사진을 관찰해서 그 모습을 최대한 정밀하게 표현할 거야.

④ 미현 : 이 사진을 바탕으로 그린 산수화를 볼 때에는, 주요 부분들을 연결하는 여백이 빚어내는 조화의 미에 유의하여 감상하는 것이 좋겠어.

⑤ 기철 : 내가 이 사진을 바탕으로 산수화를 그린다면, (b) 위치에서 바라본 심원법과 (c) 위치에서 바라본 고원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표현할 거야.

48. 다음은 [A]에서 글쓴이가 취한 서술 전략이다. 이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 것은? [3점]

> 대상 I 을 소개하고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 ⇩
> 대상 I 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 II 가 지닌 장점을 드러낸다.

① 영희는 창의성이 뛰어나 예술에 재능을 드러내는 반면, 선주는 논리성이 뛰어나 수학에 재능을 드러낸다.
②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 종교들은 처음에는 토착 신앙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러나 토착 신앙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게 되었다.
③ '갑' 제품은 보잘것없는 성능에도 불구하고 값이 비싸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그러나 '을' 제품은 같은 가격인데도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
④ 서양식 주민 자치 제도는, 기능적 합리성은 뛰어나나 구성원들의 정서적 결속력은 떨어진다. 반면 우리 농촌의 전통인 '두레' 제도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감까지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은 원래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한동안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나 고려 시대에 이르러 고유한 미를 갖게 되면서 중국 도자기의 아류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49. ㉠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부동의 관찰자를 설정한다.
② 차갑고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③ 과학적 원근법을 토대로 한다.
④ 자연의 사실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⑤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반영한다.

50. ㉡에 담긴 사고 방식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① 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②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 상청하리라. - 이황
③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에 어느 님 오랴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 서경덕
④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값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 성혼
⑤ 삭풍(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 김종서

51.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의 인공 지능 컴퓨터는 한정된 범위의 지식 영역에서는 전문가에 ㉠견줄 만한 지적 능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상식을 이용한 추론이나 인간이 매일 겪는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이해 및 감각 정보의 처리 등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공 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 해결 능력이 프로그램 자체의 구성 방법보다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들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지닐수록 지능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현재 인공 지능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가 지니고 있는 지식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인공 지능 연구자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서 컴퓨터의 인공 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개 이상의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A] 그러나 컴퓨터가 이 정도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더라도, 이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검색할 수 있게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반면에 인간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기억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지식과 상식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주의 지식까지 끌어들여 상황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 컴퓨터와는 달리 지식의 사용 규칙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많은 형태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비슷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인간이 행하는 몇 가지 형태의 지적 행위들을 제한된 범위에서 흉내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실현하려는 꿈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상상 속에만 있던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이 오늘날 그대로 실용화되어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의 세계가 점차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공 지능에 대한 상상이 내일에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다시 살펴보고, 현재보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공 지능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장애물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이들을 해결함으로써 부분적이지만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컴퓨터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컴퓨터 개발, 인간의 감각 기관과 유사한 센서의 개발, IC 소자의 집적화·소형화·대용량화 등의 하드웨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인간의 지능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미래의 세계는 단순한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한 미래는 인공 지능 컴퓨터와 같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인 것이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실현하려는 꿈을 성취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② 현재 인공 지능 컴퓨터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③ 인공 지능 컴퓨터의 능력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양에 따라 좌우된다.
④ 인공 지능 컴퓨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⑤ 인공 지능 연구의 목표는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컴퓨터를 통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있다.

53. 다음은 '인공 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 줄거리의 일부이다. 이 영화를 본 관객이 위 글을 읽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컴퓨터 프로그래머 토머스 앤더슨은 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커이다. 어느 날 그는 전설적 해커인 모피어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그가 1999년으로 알고 있는 현재가 사실은 2199년이며, 인공 지능 컴퓨터 AI가 가상 현실을 담은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을 가축처럼 사육하면서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자신의 동력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AI에게 사육되는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한 토머스는 매트릭스를 탈출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이버 전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① 인공 지능 컴퓨터와 해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군.
② 인공 지능 컴퓨터의 미래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군.
③ 인공 지능 컴퓨터의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그 위험성은 간과하고 있군.
④ 컴퓨터가 인간을 초월할 수 있으니 인공 지능에 대한 연구를 중단해야겠어.
⑤ 인공 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있어.

54. [A]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글감은? [1점]

① 평생 교육의 개념과 실제
② 도시 교통난의 원인과 대책
③ 3·1운동의 발생 및 진행 과정
④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의 차이점
⑤ 방송 언어에서의 우리말 파괴 실태

55.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비견(比肩)할
② ㉡ : 보유(保有)할수록
③ ㉢ : 요원(遙遠)하다고
④ ㉣ : 소유(所有)해야
⑤ ㉤ : 도달(到達)하기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에 사는 김 진사가 서울에 벼슬을 구하러 간 사이, 그의 아내 이(李) 부인은 딸 채봉을 이웃에 사는 장생과 결혼시키기로 한다. 한편 김 진사가 찾아간 서울의 세도가 허 판서는 김 진사에게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자신에게 첩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김 진사는 이를 승낙하고 벼슬을 얻기로 한 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님 먼 길 안녕히 다녀 내려오셨습니까?"

김 진사는 채봉을 보고 귀한 생각이 한층 더 나서 채봉의 등을 어루만지며,

"오냐, 잘 있었더냐? 그래 그간 글공부도 더 하고 바느질도 많이 익혔느냐?"

그러면서 이 부인을 쳐다보며 말하기를

"여보 마누라! 참 애기가 이제는 침선(針線) 같은 것은 배워도 쓸 데가 없구려. 침모(針母)가 다 해다 바칠 테니 말이오."

채봉이 얼굴을 숙이니 볼이 발그레해지더라. 김 진사가 다시 채봉을 보고

"아가, 너 재상의 소실이 좋으냐,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아비 어미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소원대로 말해 보아라."

채봉이가 예사 여염집 처녀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의 말일지라도 대꾸를 하여 대답하리요마는,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을 뿐 아니라, 장생의 일이 잠시도 잊혀지지 아니하더니, 부모의 하는 말을 들은 터이라 조금도 서슴지 않고 안색을 바로 하고 대답하되,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가 되기는 원(願)이 아니올시다."

"ⓐ허허 그 자식. 네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보다마는, 참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이 부인이 말을 가로막아 김 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하시는구려. 딸 자식이란 것은 바깥부모의 하시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지. 아가,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가 서울로 올라갈 의논을 하고, 그날로 온갖 세간을 내다 팔아 서울로 올라갈 행장을 차리니라.

이 때 채봉이 초당으로 나와 장생의 일을 생각하고 홀로 탄식하되,

"부운 같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이 무엇인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가 일조에 날로 하여금 신의(信義)를 배반하고 천첩(賤妾)의 몸이 되게 하려 하니 가엾고 한심한 일이로구나.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러하거니와,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 번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내 몸이나 불의지죄(不義之罪)를 면하리라."

하는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이윽고 ㉡한 꾀를 생각하고 취향을 대하여,

"이애, 취향아! 내가 너를 몇 해 동안 친형제같이 알고 지낸 터이어니와, 내 억울한 사정을 알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장씨의 일은 너도 아는 바이어니와,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약을 오늘날 배반할 수 있나.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글쎄올시다. 당초에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퇴혼

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마님께서 마음이 변하였으니, 아마 소저는 서울 마나님이 꼭 되는 길밖에 없을까 하외다. 그러나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마는, 나는 이 바닥에 살며 장씨를 무슨 낯으로 봅니까."

채봉이 이 말을 듣더니, / "이애,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다." 하고 취향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비밀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할 수밖에 없으니, 가다가 중로(中路)에서 몸을 피할 터이니, 너는 어멈하고 뒤를 밟아 오너라."

취향이 고개를 까닥까닥하고,

"그러시면 진사님과 마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소저 생각이 그러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익일 오경(五更)에 발행(發行)할새, 취향이 손을 잡고 이별하거늘, 주머니에서 돈 50냥을 주며 은근히 부탁하되,

"이걸로 노자를 삼아 부디 어젯밤 약속을 잊지 말고 따라오너라."

총총히 작별하고 교군에 올라앉으니, 김 진사와 이 부인이 속도 모르고 채봉의 마음 돌림을 다행으로 여겨 곧 발행하더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56. 위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난관에 부딪혀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주인공의 태도가 인상적이군.
②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안타깝군.
③ 도덕적으로 순수한 인간이 속물로 타락해 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군.
④ 아랫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인공은 권위적인 인물이군.
⑤ 혹독한 고초를 겪었던 주인공이 구원자를 만나 행복을 누리게 된 상황이 흐뭇하군.

57. 위 글에서 인물들이 품었을 <보기>의 생각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채 봉 : 부모께 효도할 것인가,
장생과의 신의를 지킬 것인가?
㉯ 취 향 : 주인 어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씨의 뜻을 따를 것인가?
㉰ 이 부인 : 채봉과 장생의 혼약을 지킬 것인가,
깨뜨릴 것인가?
㉱ 김 진사 : 채봉을 세도가의 첩으로 보낼 것인가,
평범한 여염집 부인이 되게 할 것인가?

① ㉮→㉯→㉱→㉰
② ㉯→㉮→㉰→㉱
③ ㉰→㉱→㉯→㉮
④ ㉱→㉰→㉮→㉯
⑤ ㉱→㉰→㉯→㉮

58. ㉠에 드러난 화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채봉의 생각을 대신 정리하여 김 진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② 김 진사와 채봉의 생각을 절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관습을 내세워 김 진사의 입장을 옹호하며 상황을 일단락짓고 있다.
④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 김 진사와 채봉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⑤ 부모의 도리를 내세워 딸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59. 위 글에 이어질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에서 고려되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밤이 되어 주막에서 쉴 새, 삼경쯤 사면에서 '으악' 소리가 나며 불빛이 충천하거늘 김 진사가 누웠다가 놀라 나와 보니, 칼을 든 화적(火賊)이 물밀 듯 들어오며 사람들이 크게 놀라 피난하니라. 김 진사 주막 안채로 들어가 보니 채봉은 간데없고 처처에 들리나니 울음소리뿐이라.

① 어떻게 하면 취향이를 서울까지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②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나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할 수 있을까?
③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서 안전하게 서울까지 당도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
④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서울 가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60. <보기>는 '허허'에 관한 사전의 풀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한 것은?

〈 보 기 〉

허허[1] 부 거리낌 없이 크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허허[2] 감
1. 슬프거나 놀라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였을 때에 깊이 탄식하여 내는 소리.
2. 못마땅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근심하거나 나무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① 딸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니, '허허[1]'이 적절하다.
② 딸을 귀히 여기는 김 진사의 태도를 고려할 때, '허허[1]'이 적절하다.
③ 딸의 가엾은 미래를 떠올리고 탄식을 느끼는 것이니, '허허[2]'의 1이 적절하다.
④ 자식의 일에 대해 느끼는 자신의 막막한 심정을 표출하는 것이니 '허허[2]'의 1이 적절하다.
⑤ 딸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것이니, '허허[2]'의 2가 적절하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